

滄海詩眼 考察

— 林下詩評集의 紹介를 위해 —

權 泰 乙

(目 次)

I. 머 리 말

III. 끝 말

II. 본 말

I. 머 리 말

中國에서의 詩評은, 일찌기 書經 舜典(詩言志說)이나 論語 爲政篇・八佾篇 등에서부터 비롯되어 曹丕의 典論 論文, 陸機의 文賦, 劉勰의 文心雕龍, 鍾嶸의 詩品 등에서 거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후 唐・宋代를 거쳐 明末 淸初에 오면 中國 詩評은 완전 체계화되고 다양화되어 批評活動이 문학의 한 분야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韓國의 詩評은, 麗末에 詩話를 수록한 破閑集・補閑集・樸翁稗說 등의 출현에서 비롯해 朝鮮朝에 들어와 詩專門 詩話集인 東人詩話의 출현으로 그 활동은 본격화되었다고 하겠다. 이후로, 慵齋叢話(成俔), 秋江冷話(南孝溫), 搜聞瑣錄(曹伸), 淸江詩話(李齊臣), 芝峰類說(李晬光), 惺叟詩話(許筠), 霽湖詩話(梁慶遇), 壺谷詩話(南龍翼), 小華詩評(洪萬宗), 詩評補遺(洪萬宗) 등으로 이어지면서 비평활동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특히, 18세기 초 洪萬宗(1643~1725)에 이르러서는 15세기 아래의 한국 詩話는 거의 집대성된 사실을 볼 수 있다.¹⁾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滄海詩眼은, 역대 중국의 詩評과 한국의 詩評(詩話)을 두루 고람한 뒤 저술(1800년대 초)된 것으로 朝鮮朝 詩評의 말기 작으로는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보았다. 특히 滄海詩眼은 詩話의 불모지와 같은 嶺南에서 저술된 것이나, 筆寫인 채 남아 있고, 또 학계에 전

1) 李炳漢, 增補漢詩批評의 體例研究, 通文館, 1985, p. 224 참조. 홍만종 이후에도 洪重寅(?~1751)의 詩話彙成이나 徐澗(1785~1850)의 詩話集 등이 있으나, 朝代別로 분류한 詩話로 홍만종의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함.

혀 소개되지 않아 本稿에서는 우선 발굴·소개함에 목적을 두어 作者와 體裁 및 수록된 내용의 개략을 살피는데 그치며, 詩評史의 위치 정립은 他 詩評(詩話)과의 구체적인 대비 고찰을 통해 성취될 것인 만큼 과제로 남긴다.

II. 본 말

1. 著 者

저자 李敬儒는 1750(英祖26·庚午)년 慶北 尙州에서 태어나 1821(純祖21·辛巳)년에卒한 선비요 詩人이다. 本貫은 延安이요, 字는 德懋, 號는 林下·半俗·滄海였다. 高祖 博泉 沃은 東州 李敏求의 高弟로 文名을 얻은 분이며, 曾祖 息山 萬敷는 星湖 李瀾이 公案한 바 있는 大文章家이기도 하며, 祖父 之彬은 文才가 특출했으나 壽를 못했고, 父 剛齋 承延은 그 弟 秉延과 더불어 당대 詩壇의 巨擘이었던 石北 申光洙(1712~1775)·海左 丁範祖(1723~1801) 등과 齊名한 詩人이었다.

林下는 儒學과 文學의 연원으로서는 嶺南屈指의 名門에서 태어나 家學을 전수하는 한편 立齋 鄭宗魯의 高弟로 嶺南의 名儒이기도 하였다.²⁾ 1792(正祖 壬子)에 壬午逆臣(1726·장헌세자 곧 사도세자의 변에 참여한 時任臣)을 疏討함에 疏論이 正嚴하여 王이 불렀고, 進言한 時論이 正當하여 王이 參奉을 제수해 장려한 선비로 그 때 명성은 전국적이었다. 遺稿 12卷 6冊과 滄海詩眼을 남겼다.

2. 著作年代 및 體裁

저작 연대는 未詳이나 序文을 그 父 剛齋 李承延(1720~1806)이 쓴 것으로 보아 最下限으로 보아도 林下의 56세 때인 1806년이 된다. 그러나, 40세 전은 아닐 것이란 추정은, 林下가 자신의 지난 날 詩稿를 모으고 近作詩를 합해 東野軸이라 題名한 것이 1804(純祖4)년이니 (林下遺稿卷二 東野軸小序), 1804년에서 1806년 사이의 저술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筆寫本이 남아 있는데 初本은 權泰文(童話作家·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25~30)氏가 소장하고 있고, 후손이 필사한 것이 宗宅 및 高麗大圖書館 등에 보존되어 있다.

2) 林下의 家系는 拙稿, 息山李萬敷의 文學研究 참조

本書는 漢文筆寫本이며 上中下 3卷 1冊으로, 每面 10行, 1行 20字며 上卷 30面・中卷 84面・下卷 50面이며 총 166面(서문 포함)이다.

3. 著作 目的

自序는 없으나 剛齋의 序文을 통해 보면, 세상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 詩도 같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詩의 聲響音律에는 淳濃・枯潤・沈浮・妍媸・工拙의 구별이 있으나, 淳薄(겉만 있고 정의는 없음)한 것을 지적해 淳厚함을・윤택한 것을 지적해 枯潤함을・浮薄한 것을 지적해 沈重함을・순수한 것을 지적해 沈鬱함을・妍麗한 것을 지적해 더럽고 추함을・졸렬한 것을 지적해 工巧함을 밝히는 詩眼은 드물다 하였다. 나아가 剛齋는 “누가 능히 탁월한 識見을 밝게 놓아 妙處(三昧)를 洞見함을 간직해 冥塗에 華月을 비추고 昏衢에 明鏡을 걸어 正路를 가리켜 幽谷을 벗어나게 하라”³⁾고 탁월한 詩眼의 필요성을 지적한 뒤 아들 敬儒가 “諸家の 詩를 論함에 위로는 唐宋으로부터 아래로는 皇明・東國에 이르기까지 詩의 正・衰를 辨別하고 旨趣를 平議하여 華衰(귀히 여김)을 가하지나 銖銖도 가해 篇作을 取舍하고 字句를 雌黃(詩文의 語句를 고침)하여 자못 그 바른 데 돌아감을 얻었다”⁴⁾고 인정하였다. 이로 보면, 滄海詩眼이란 세상의 詩를 보는 눈이란 뜻이고, 저작의 목적은 세인의 詩를 보는 눈을 밝혀 詩道の 正路를 밝히고 바른 詩鑑賞 내지 詩作에 도움을 주게 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첨기할 일은, 이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미 기록된 有名 詩人의 詩도 나름대로 褒貶하고, 특히 無名 詩人의 詩에서 佳作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4. 內容概要

1) 選定 詩人

중국은 唐・宋・明의 詩人으로 한정했으며 한국은 新羅 崔致遠으로부터 19세기 초 저자가 교류한 시인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국명	신분	王	王	妃	士大夫	武人	士家女	妓女	僧	吏	奴	穢	工	死	者	計	
권수		上	中	下	上	中	下	上	中	下	上	中	下	上	中	下	(명)
한	국	•	•	1	•	•	25	96	63	•	•	1	•	1	•	•	201
중	국	•	•	1	•	•	1	40	53	21	•	•	•	•	•	1	121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당수의 韓中詩人을 限定時期內에서는 다루었으나 우리 시인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시인은 모두가 詩史에 남은 시인 가운데의 선정인데 비해 한국 시인은 詩史(역대시화·시경집 중심)에 남은 시인 중에서도 엄선(신라 1명·고려 26명·조선 174명)했으며, 특수한 경우 외는 한 시인을 重論하지 않았다. 실제 드러난 숫자는 322명이나 익명의 시인이 4명, 이름만 거론된 시인(특히 중국 시인이 많은데 이는 논증의 예시 인물로 취급함)이 10여명 있어 본 집에 수록된 시인의 수는 330여 명에 이른다.

특히 詩(人)發掘面에서 보면, 東人詩話⁵⁾는 80여 명이 士大夫(거의 가버슬 있음)로 그중 고려 시인이 절대다수이며, 例詩가 없으며 이름만 거론된 妓女가 5명, 僧侶 2명, 篙工 1명, 기타 4명을 포함해 無名에 가까운 시인이 12명 정도가 소개되었다. 이들의 선정에 대해 저자의 언급은 없으나 그 인멸을 아깝게 여긴 수록의 의지를 읽을 수는 있다. 그 외 앞에서 언급한 諸詩話集에는 거개가 無名氏의 수록이 있긴 하나, 人物中心(관작·문벌 등)의 선정이었고, 小華詩評⁶⁾ 下卷 87章에 失名人 3명, 91章에 卑流·賤隸 6명, 93章의 夫人 1명·妓女, 官婢 5명(妓女는 이름만 든 것 2명 포함) 등 15명을 침묵하였다. 그 외 洪萬宗 주변의 無名詩人과 夭死者 12명 등을 선정하였는데 賤流를 선정해 그들의 詩를 評하고 난 뒤, “아, 재능이 貴賤에 국한되지 않음이 이같은저”⁷⁾라고 한 말에서 보아도 그가 詩人發掘로서의 詩評에도 관심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정된 詩人中 無名人(관점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諸詩話集이나 한국인명사전·세계인명대사전·각종 號譜 등에 나타나지 않는 기준)⁸⁾은 넉넉 잡아도 10% 미만이다. 이들에 비해 滄海詩眼에는 士大夫 중에서도 無名人이랄 수 있는 시인 이 56명, 앞의 표 士家女 이하의 詩人을 합치면 70여 명으로 30%를 훨씬 상회한다. 이는, 林下가 人物中心의 詩評이 아니라 作品爲主의 詩評에 임했음을 알게 해 주며 나아가 그의 저

3) 滄海詩眼序, 孰能明着一隻眼 藏洞見三昧 照華月於冥塗 揭明鏡於昏衢 指正路而出幽谷者哉

4) 滄海詩眼序, 論諸家詩 上自唐宋 下至皇明東國 而辨其正衰 訂其旨趣 或加華袞鉄鎧 而取舍乎篇作 雖黃乎字句 頗得其歸

5) 徐居正, 東人詩話, 慶州府重刊, 景仁社, 1980년

6) 洪萬宗, 小華詩評, 「洪萬宗全集」, 太學社, 1980년

7) 洪萬宗, 小華詩評, 91章, …噫 才之不限於貴賤如是夫

8) 韓國人名大辭典, 新丘文化社, 1979와 世界人名大辭典, 進賢書館, 1979, 李憲求, 朝鮮人物號譜, 文化書館, 大正13 등을 참조

술 목적 속에는 詩人을 발굴해 인멸을 막으려는 높은 뜻도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첨기할 일은, 滄海詩眼에 거론된 시인은 黨色에 관계없이 두루 선정된 시인이란 사실이다.⁹⁾

2) 收錄 內容

滄海詩眼은 크게 詩話類·詩論類·詩評類를 수록했다. 詩話類는 詩道나 詩論, 詩評에 대한 논술에 古事가 곁들인 것, 詩論類는 개인의 시에 대한 品評이 아니라 시의 일반 이론·시 창작상의 이론이 위주로 된 것, 詩評類는 시 자체에 대한 評을 위주로 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詩評 자체에 대한 評은 詩評類에 포함시킨다. 이에, 각권의 수록 내용을 東人 詩話·小華詩評과 대비해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類別 冊名 卷數	詩 話 類			詩 論 類			詩 · 評 類			計 (章)		
	東人	小華	滄海	東人	小華	滄海	東人	小華	滄海	東人	小華	滄海
上 卷	11	8	2	17	9	25	40	85	49	68	102	76
中 卷	•	•	13	•	•	51	•	•	128	•	•	192
下 卷	8	7	8	13	5	31	54	84	67	75	96	106
計 (章)	19	15	23	30	14	107	94	169	244	143	198	374

위의 類別에도 관점에 따라 유동성은 있으나 세 책이 각 詩論·詩評에 치중하고 있어 詩評集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滄海詩眼이 東人 詩話나 小華詩評뿐 아니라 다른 詩話(詩評)에서보다 월등히 詩論에 관심을 쏟은 것은 19세기 경에는 이미 한국 詩評家의 理論이 그만큼 풍부해졌고, 또 학고한 詩理論을 바탕으로 詩評에 임했음을 알려 주는 좋은 자료라 할 수도 있다.¹¹⁾

편집의 체계적인 면에 있어서는 선정된 중국 시인은 全卷에 고루 나타나 한국시인은 上卷에 有名大家들, 中卷에 有無名詩人을, 下卷에는 高麗時代 詩人을 집중적으로 수록한 외에는, 時代別·國別·內容別·形式別의 정제된 면이 부족하다. 이는 한국 시화·시평 집의 공통적인 한계라

9) 洪萬宗도 이점에서는 같으나, 詩話叢林에 題後한 林望(1640~1724)의 水村謾錄(詩話叢林所載)에는 그가 老論인 관계인지 일색으로 西人系의 시인만 선정되었고 詩話叢林的 跋을 한 任環의 玄湖瑣談도 이와 비슷하다.

10) 詩話叢林 所載의 終南叢志(金得臣·1604~1684)는 총 46章에 詩論은 9章, 壺谷詩話(南龍翼·1628~1692)는 총 65章에 詩論은 3章, 水村謾錄에는 총 54章 중 詩論이 없고 玄湖瑣談에는 총 34章中 詩論은 3章이다.

지적할 수 있겠다.

이상의 三類型에 속하는 詩를 통해 林下는 詩人, 詩作, 詩 자체에 대한 제문제를 372章으로 논술해 놓았다. 특히 每章은 詩話를 제외하면 거의가 60字 내외로 論述에 간결성을 유지하고 있다. 詩人에 대해서는 資·才·志¹¹⁾를 중심으로 詩人像을 평가하거나 제시하고 있는데 作品外的 論議도 간혹 곁들여졌다. 詩作은 창작상 詩人의 作詩態도와 詩作法 자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보다 시인의 주관성 내지 개성을, 후자는 보다 객관성 내지 보편성을 고려한 분류에 불과하다. 詩品은 詩作品의 評價로 내용적이고 의미상의 문제를 다룬 詩意, 형식적이고 표현상의 문제를 다룬 詩巧, 시 전체를 통해 느껴지는 風格과 聲律의 문제를 다룬 格律로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詩品에 사용된 용어는 唐僧 齊己의 風騷詩格, 張爲의 詩人主客圖, 司空圖의 二十四詩品 등의 것을 두루 섭렵해 원용했음을 볼 수 있다.¹²⁾

이에, 세분화된 내용을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詩人像

- 〈資質〉英發, 安分, 野, 氣質自高, 氣骨, 氣短, 氣促, 氣像, 貧困富貴像, 氣邁絕俗, 慷慨, 傍若無人, 抗高者, 達者, 道者風, 帝王氣風, 神彩颯爽, 大國風 등
- 〈才能〉詩筆雙美, 詩才, 才思湧出, 才勝, 逸才, 才奇, 天才 등
- 〈志意〉驚高, 務高遠新奇, 凌駕古人, 骨鯁有志, 奪他詩, 志高放蕩, 壓倒古人, 思若奇澁 등

나. 詩 作

- 〈詩作態度〉¹³⁾學唐, 學杜, 學時語, 推一人擅場, 蹈襲, 用輕語, 隨才, 詭, 難解詩, 夙晚成, 誇大, 誇小, 前人未道破, 先氣節後文藻, 無斧鑿痕, 無推鼓, 神速, 思苦, 苦語, 鍛鍊, 細思, 邁苦, 造化自然, 體驗 등
- 〈詩作法〉知詩道, 詩三來說, 下字, 景物與詩中語一致, 寫眞, 寫眞情景意, 寫實景, 善觀, 善相, 寫畫, 畫工, 詩中有畫, 欲畫, 遍盡光景, 曲盡眞實, 緻工, 巧工, 至工, 精工, 狀物, 酷似, 意在言外, 言有盡意無窮, 用奇語, 用事, 譏諷, 警動, 警語, 重押, 一韻多押, 協音律, 詩意音律諧調 등

11) 李萬敷, 息山先生續集 卷2, 答李德和(2書)에서 시인의 三要件을 資·才·志로 든 바 있는데 曾孫인 林下도 이를 인정한 것 같다.

12) 中國文學批評史大綱, 臺灣開明書店, 民國68, pp. 113~118 참조

13) 詩人像 中の 志意는 시작태도라 할 수도 있음

다. 詩 品

- 〈詩意〉健實, 老健, 和平, 幽有神機, 幽情閑遠, 高遠幽妙, 深遠, 沈着痛快, 典當, 精密, 圓滿, 神動, 奇幻, 警邁, 清警, 奇警, 幽警, 警世絕語 등
- 〈詩巧〉造奇, 造化, 語逸體俊, 蕭散自在, 萎弱, 精密華麗, 絕佳, 極巧, 奇巧, 極美, 萎靡, 浮而澁, 涵蓄, 神句, 多奇警語, 善喻, 入杜室 등
- 〈格律〉清潤, 清爽, 清疎, 清洒, 清新美麗, 清遠, 行雲流水, 氣餒, 氣慨, 慷慨悲壯, 險詭, 幽雅, 雅淡, 沾淡, 雅絕, 雅麗, 華麗, 瞻麗, 靜華, 雅而不泰, 幽楚, 雄渾, 豪宕, 豪放, 炳燁超邁, 蒼遠高古, 高古皜潔, 枯寒瘦淡, 奇邁絕俗, 新奇 奇怪, 奇高, 格高語新, 詩體崇嚴崛起, 調響純雅, 詩律清高, 體格甚高, 律法麗密 등

5. 詩眼 各論

이 항에서는 滄海詩眼에 나타난 各論을 크게 詩話·詩論·詩評 類로 나누어 특기할 몇 예를 드는 것으로 대신한다.

1) 詩話類

① 詩不朽

下卷 19章은 大提學 李匡德과 北關妓 可憐 사이에 있었던 詩話다. 可憐은 前任某의 사랑을 받다가 이별 후 守節한 妓女인데 이광덕이 北塞로 유배 중 鍾城에 이르렀을 때 錢別宴에 초대되었다. 可憐은 이미 늙어 백발이 성성하고 이도 빠졌으나 酒興을 돋우려 出師表를 誦했다. 先帝가 臣을 三顧草廬했다는 대목에 이르자 李匡德은 처연히 눈물을 흘리며 “南關 女妓의 귀밀털은 실날같은데／취하자 소리높여 兩出師表부르네.／삼고초려 대목을 노래할 적에／쫓겨난 신하의 눈물 만 가닥으로 흐르네”라고 시를 지었다. 이를 저자는 “李公의 詩로 하여 可憐은 죽었으나 썩지는 않았다.”고 하였다.¹⁴⁾ 이는 曹丕의 典論 中 論文에서 밝힌 바 있는 ‘文章은 不朽한 盛事’임을 재확인한 시화라 할 수 있다. 詩로 하여 妓女의 節介는 영원히 썩지 않게 되었다는 文學效用論이기도 하다.

② 文章 華國과 損國

宋太祖가 蜀을 멸하고 蜀主孟昶의 화예부인 費氏를 불러 詩를 읊게 하니. ‘君王의 城위엔 항복의 깃발 쫓겼는데 深宮에 있는 첩이야 어찌 알았으리오. 14만 병

14) 滄海詩眼, 下卷 19章, 따옴표 것만 인용. 南關女妓髻如絲 醉後高歌兩出師 唱到草廬三顧地 逐臣清淚萬行垂 以李公一詩 可憐死 不朽矣

병갑 버리고 단 하나 男兒는 없었네'라 읊었다. 이를 보면 장부가 목숨을 아껴 무릎을 꿇은 자야 사람 대할 면목이 없으리라. 高麗 穆宗 때 契丹主가 興化鎮에 침입해 副總管 李鉉雲을 잡아 위협하니 鉉雲이 詩를 바쳐 '두 등은 이미 새 日月을 우르렀으니 마음에 어찌 옛 산천 생각하랴'하였다. 鉉雲같은 자의 행위는 개 도야지 같아 실로 더붙어 논할 게 없다. 그러나, 당당한 대장부로서 일개 부인만도 못하니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文章이 비록 華國이라지만 장자 어디다 쓰리오!¹⁵⁾

이 詩話 역시 詩의 效用論에 관계되면서도 특히 詩人像과 밀접한 시화로 詩人의 資質論의 일단이라 할 수 있다.

③ 詩評眼

시를 보는 높은 안목이 없으면 남의 시를 평하기가 어렵다. 唐의 錢起가 어려서 湘東驛舍에서 “노래 끝나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 위엔 산봉우리만 푸르네”¹⁶⁾란 神句를 들었는데 뒷날 進士試에서 이 두구로 결론을 맺으니 당시의 試官 李暉가 이 두 구에 神句라 批點했다. 이를 저자는 神句를 볼 줄 아는 神眼이라 하여 詩評眼은 아무나 지니는 것이 아님을 言外에 함축시켰다. 이 詩話는 洪萬宗의 小華詩評(上) 22章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錢起가 神句를 얻어 魁科한 일과 高麗의 鄭知常이 鬼物이 일러준 神句로 魁科한 일을 神妙한 類의 異事라고만 예시한 것과는 林下의 詩話性格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詩에 얹힌 기이한 일을 기이한 일 자체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閑談으로서가 아니게), 異事의 이면에 감춰진 眞實을 詩論展開에 원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詩眼의 구비가 어렵다는 뜻을 내포한다. 林下는 또 詩評의 偏見性을 詩話를 통해 예시했다. 陶隱과 三峰은 평소 불화터니, 어느 날 三峰이 어렴풋 잠이 들었는데 黃鉉이란 자가 陶隱의 廬從詩¹⁷⁾를 외니 三峰이 눈을 뜨고 다시 외게 하고는 語韻이 淸圓한 게 흡사 唐詩같다 하자, 黃鉉이 陶隱의 詩라고 하니 三峰은 금새 어디서 이 따위 惡詩를 가져왔느냐고 酷評을 했다는 詩話다. 이 詩話는 東人詩話(上)에도 수록된 것인데¹⁸⁾ 林下가 이 詩話를

15) 滄海詩眼 下卷54章, 宋太祖滅蜀 召蜀主孟昶花榮夫人費氏 使賦詩 詩曰君王城上豎降旗 妾在深宮那得知 十四萬兵齊解甲 也無一箇是男兒 由此觀之 丈夫之偷生屈膝者無面目見人矣 高麗穆宗時 契丹主入興化鎮 執副總管李鉉雲脅之 鉉雲獻詩 曰兩眼已瞻新日月 一心何憶舊山川 如鉉雲者 行苦狗彘 固不足與論 然而以堂堂丈夫 曾不苦一婦人 豈非可恥之者乎 文章雖曰華國 將焉用哉

16) 滄海詩眼 中卷100章, 曲終人不見 江上數峰青

17) 滄海詩眼 下卷 48章, 鼓角滄江動旌旗 白日陰詞臣多侍

18) 徐居正, 東人詩話 上卷 53章, 慶州府重刊, 1980년 影印

再引한 이유는 宋代의 王安石과 蘇東坡가 不和하여 王安石이 늘 東坡를 능가하려 하다가 끝내는 王安石이 東坡詩에 不及함을 자인한 사실을 환기시킨 四佳 徐居正의 詩話에 妙處가 있다고 본 까닭이다. 이 妙處는 바로 詩는 詩로써 보는 객관적 詩評眼이 소중하다는 저자의 詩評觀을 충족시켜 주었던 것이다.

2) 詩論類

① 詩道の 變遷

詩道는 唐에 이르러 大盛하여 風雅의 遺意를 유지하더니 五言 七言의 近體詩가 생기면서부터 聲響態色이나 취하고 意趣를 결해 詩道가 일변하였다. 더구나, 宋代에 이르러서는 純全히 古道에 합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는 곧 文章이 世相과 더불어 升降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¹⁹⁾라고, 詩道の 변천은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자가 현실적으로 詩道の 변천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詩論·詩評上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 滄海詩眼 전편에서 詩의 正道는 宋代에서 끊어져 시를 배우는 사람은 學唐詩·學杜詩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면서도 “邵雍의 擊壤集은 詩家の 正道가 아니라서 學者가 본받을 수 없다. 그러나, 또한 隨意로 寫出하여 가슴에 영감이 없는 것은 볼 만도 하다”²⁰⁾하였고,

詩家は 늘 濂洛(필자주:程朱學派)의 詩를 陳陋하다고 물리쳤다. 나 또한 濂洛의 詩는 詩家の 正道가 아니란 생각에平生 보기를 꺼렸는데, 우연히 朱子の 詩를 열람타가 九日天湖 작품을 얻었다. 바야흐로 朱子是 天才라 卓越하여 보통 사람이 감히 쉽게 논할 분이 아님을 알았다....(詩略)...시가 극히 淸警하여 비록 大曆(唐時)의 작자 사이에 놓더라도 나는 그 누가 나올 지 알 수가 없다. 진실로 그 才能을 따라 다 마땅히 唐詩를 하고자 하면 子瞻(蘇東坡)의 무리가 비록 날로 달로 鍛鍊한다고 하여 어찌 능히 이런 시를 쓰리오.²¹⁾

19) 滄海詩眼 上卷 1章, 所謂文章與世 升降者非耶 文學과 時代의 관계는 유희, 文心雕龍, 時序에서 상론하였다.

20) 滄海詩眼 中卷 98章, 邵子擊壤集 非詩家正道 學者不可效也 然亦可見 隨意寫出 胸中無滯

21) 滄海詩眼 上卷 51章, 詩家每拙濂洛爲陳陋 余亦以濂洛爲非詩家正道 平生不喜看 偶閱朱詩 得九日天湖作 方知朱子才卓越 非常人之 敢易論也...(詩略)...極淸警 雖編之於大曆作者之間 吾未知其孰優也 固知其才隨處 皆宜欲唐乎斯唐而已 欲濂洛乎斯濂洛而已 子瞻輩雖旬鍛月鍊 豈能爲此乎

라고, 詞章派詩人은 程朱學派(道學派)의 詩까지를 詩의 正道가 아니란 생각을 지녔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詩人은 名分에 얽매일 필요없이 자기 재능을 따라 개성을 신장함이 옳다는 詩道觀을 전개하였다.²²⁾ 이같은 詩道觀은 陽名學을 했던 盧守愼을 詩의 聖域에 들었다고까지 하였다.²³⁾

② 詩三來說

林下는 詩가 창작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했다.

詩는 세 경우에서 창작되는데 心氣에서 유래하는 경우, 心神에서 유래하는 경우, 心情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孟浩然의 ‘선비가 뜻을 얻지 못해 吳楚間을 떠도네’, ‘氣運은 雲夢澤을 끼고 파도는 岳陽城을 흔드네’, 杜子美의 ‘吳楚는 東南으로 트이고 乾坤은 밤낮으로 떴네’같은 語句는 곧 心氣에서 유래한 것이요, 孟浩然의 ‘三月의 호수는 평온한데 집집이 봄새는 울고’, 杜子美의 ‘기린은 움푹 앉는데 화로의 연기는 오르고 공작꼬리 천천히 퍼니 부채그림자 돌고’, 柳子厚의 ‘외론 배 簑笠한 늙은이 홀로 寒江에 낚시질, 눈은 내리고’ 같은 語句는 곧 心神에서 유래한 것이며, 孟浩然의 ‘재주없어 明主가 버리니 잣은 병에 벗도 드무네’, 杜子美의 ‘집 생각에 달 아래 건다 淸夜에 서고 아우 생각에 구름 보다 대낮에도 잠드네’, 王摩詰의 ‘가을바람 진정 쓸쓸한데 손님 흠어지는 孟嘗君의 문전일세’같은 語句는 곧 心情에서 유래한 것이다.²⁴⁾

詩創作의 동기를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한 시에서도 氣·神·情의 소산을 판별할 수 있다 하여,

22) 이 같은 詩觀은 燕岩 朴趾源(1737~1850)의 文體革新 사상과 相通하는 觀으로, 中國의 王充(27~97?)이 漢代의 正統學風을 비판하고 作家의 創作의 個性을 주장한 것(周勛初, 中國文學非評小史, 崧高書社, 民國74, pp. 36~41참조)에 연맥되어 古文派 文學觀과도 상치되는 詩觀이다.

23) 滄海詩眼 中卷 168章, …讀此方知此老(원자주: 盧守愼)之聖於詩也

24) 滄海詩眼 上卷 6章, 詩有三來 曰氣來神來情來 若浩然之 士有不得志 栖栖吳楚間 氣蒸雲夢澤 波撼岳陽城 杜子美之 吳楚東南拆 乾坤一夜浮等語 却是氣來 若浩然之 二月湖水平 家家春鳥鳴 子美之 獐獐不動爐烟上 孔雀徐開扇影還 柳子厚之 孤舟簑笠翁 獨釣寒江雪等語 却是神來 若浩然之 不才明主棄 多病故人疎 子美之 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 王摩詰之 秋風正蕭蕭 客散孟嘗門等語 却詩情來。

이 三來說은 藝術을 爲한 藝術을 주장한 殷璠(唐)의 河嶽英靈集의 自敍에 ‘夫文有神來, 情來, 氣來, 有雅體, 野體, 鄙體, 俗體, 編紀者能審覽諸體, 委詳所來, 方可定其優劣, 論其取舍’라 하였다.

杜荀鶴의 秋日旅中 詩에, ‘젊을 때는 마음이 장해 나그네되길 가버이 여거더니
하룻날 병드니 집에 있을 걸 생각하네. 비맞은 언 매미는 일따라 떨어지고 호수
지난 가을 거러진 구름쫓아 빗겨 나네’라 했는데, 앞 二句는 氣來요 뒤 二句는 神
來다.²⁵⁾

라고, 예시하였다. 중국에서 心神이라 함은, 서구의 心像(image)이 지닌
의미를 내포할 뿐 아니라, 心像의 내용까지를 초월한 마음의 虛靈知覺함
을 일컫는 말로 그 伸展活動에 전혀 구애받음이 없는 想像力이요 靈妙한
마음이다. 이에 비해 心氣란 伸展活動에 阻礙 限制를 느끼어 그것을 극
복하거나 융화하려는 마음의 意志가 身體行爲에 집중됨을 일컫임이다.²⁶⁾

이로 보면, 前後 예시한 詩句에 神來란 자연 현상과 정신적 상상력과
의 자연스런 交感에서 시가 창작되는 경우요, 氣來란 자연현상과의 접촉
에서 詩人의 意志力이 작용할 때 창작되는 경우며, 情來란 詩人의 感情
作用에서 창작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요약하면, 저자는 詩創作의 動
機(契機)를 詩人의 想像·意志·感情 活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하겠
다.

③ 學 詩

저자는 시를 짓는 일(文藻)에 앞서 氣節을 함양함이 순서라고 보아²⁷⁾
孟子가 浩然之氣를 기르라 한 일이나 曹丕의 ‘文以氣爲主’란 설에 동조
하였다. 그러기에 滄海逸士(鄭瀾)가 나귀 한 마리로 名山川을 遍觀함을
남들은 다 狂人의 짓이라 했지만 저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다.²⁸⁾
이는 시인의 氣像은 후천적 노력에 의해 개조될 수도 있다는 관점이
기도 하며, 앞의 詩人像의 資質項에는 유독 詩人의 氣像과 관련된 用語
가 많음도 저자가 氣節을 조중히 여긴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體驗을 소중히 여겨 高麗의 詩人 康日用이 해오라기시(驚鷺詩)를
쓰려고 雨中에 天水寺 南溪上에서 관찰하다 “날아 靑山의 色을 가르네”
²⁹⁾란 詩句를 얻었는데 이는 古人이 미처 이르지 못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25) 滄海詩眼 中卷 6章, 杜荀鶴秋日旅中詩 曰少年心壯輕爲客 一日疾來思在家 經雨凍蟬
隨葉墮 過湖秋雁趁雲斜 前二句氣也 後二句神也

26) 劉嫻·崔信浩譯, 文心雕龍, 서울, 玄岩社, 1975, 卷 第26章 神思 및 唐君毅, 中國
文化之精神價值, 台北, 正中書局, 民國68, pp. 138~139참조

27) 滄海詩眼 下卷15章, 詩當先氣節而後文藻…라 함

28) 滄海詩眼 中卷 107章, 滄海逸士 爲人奇古 買一疋蒼驢 遍觀名山川 人皆謂之狂 余獨
許之

하였다. 이같은 주장은 그의 詩作態度(創作觀)와도 밀접함을 볼 수 있다.

내 일찌기 시골에 살아 배부르면 지팡이 짚고 隣家の 사립박을 받길 달은대로
거닐다 잠시 멈추어 눈앞의 景物이 다 詩中語(필자주: 胸中語)와 같아지기를 기다
린 연후에야 詩지를 것을 알았다.³⁰⁾

라고 했다. 이는 잠재해 있던 詩想이 事物과의 만남으로 구체화(형상화)
되는 創作過程을 설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詩人의 體驗은 곧 그의 가슴
에 축적되어 온 詩想의 具象化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抒情詩의 藝術을
주장한 陸機의 “感物興起”의 說과도 상통함을 알 수 있다.³¹⁾ 나아가 林
下는 學詩者는 詩道가 高遠新奇함을 추구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근세에 많은 시인이 高遠新奇함에 힘써, ‘담장 모서리에서는 닭의 자녀들이 다
투어 달리는데, 다락 가운데는 제비 내외가 단정히 앉았네’같은 語句가 혹 인구에
회자되니. 생각하며 詩道가 이같은 것을 좇아 큰 액을 만나게 될까 걱정이다.³²⁾

라고 했다. 이는 곧 林下 당대의 詩壇風潮를 제보한 것일 뿐 아니라, 詩
道가 점점 혼란해짐을 바로 잡으려는 遠慮라고도 하겠다. 또한 그는 詩의
本質을 바로 알 때에만 詩作이 가능함을 일깨우고 있다.

古今詩話에, 物象을 보아 느낌이 있는 즉 感興이 있게 마련이다. 내게 興이란
誦(밀 사람이 윗 사람을 나무람)에 가까와 達夫(高適)의 菜園詩(필자주: 菜園詩
는 中卷 126章에 있는데, 뽕밭 사이 갈면 채소는 늘 풍성하리, 문노니 葵灌(아
욱·콩)을 어찌해 廟堂에 들이는가? 라고 했다)는 곧 誦에 가깝다. 作者가 興과
誦의 다름을 알아야 비로소 詩를 말할 수 있다 하겠다.³³⁾

29) 滄海詩眼 下卷 16章, 飛割靑山色이라 했는데 東人詩話 上卷 10章에서는 飛割靑山
腰라 했고 宋詩人 蕭東夫도 이같은 경우가 있어 서로 행위가 부합됨을 詩話로 엮어
놓았음.

30) 上同 中卷 53章, 余賞居林落間 食飽支筇 縱步隣家之扉 小立待之 眼前景物 悉如詩
中語 然後知其工也

31) 周鼎初, 中國文學批評小史, pp. 53~55 참조

32) 滄海詩眼 上卷 14章, 近世多務高遠新奇 墻角爭趨鷄子女 樓中端坐燕夫妻等語 或膾
炙人口 竊恐詩道 從此而遭一大厄會也

33) 滄海詩眼 中卷 127章, 古今詩話 云都物有感則有興義 盖興近乎誦 達夫菜園詩(耕地
桑拓間 地肥菜常熟 爲問葵灌資 何如廟堂內) 則近乎誦矣

밑 사람으로서 위 사람을 나무라는 詩意를 言外에 남기는 訕의 詩와 ‘文已盡而意有餘’한 興의 詩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예시는 詩의 本質 내지 詩義를 분명히 알았을 때만 學詩의 기본이 갖추어진다고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이제, 學詩의 실제적인 몇 문제를 살펴 보도록 한다.

시를 배우는 사람이 옛 사람의 用力處를 알고자 하면 응당 먼저 그들의 詩語使用(下字)에 착안해야 한다. 子美의 詩에 ‘돌아가는 기러기는 靑天을 좋아하고(喜)’, ‘황량한 들은 풀과 유자를 늘어뜨리고(垂)’, ‘강물소리는 백사장을 달리고(走)’란 詩句가 있다. 이들 시의 喜字 垂字 走字는 子美의 앞 사람으로서는 拈出한 이가 없다. 이것이 子美의 用力處다.³⁴⁾

詩構成의 기본 단계인 下字用法에 대한 용례는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金三淵이 無名の 楓岳僧으로부터 不識下字하는 詩人으로 평가받는 詩話도 있다.³⁵⁾ 學詩者는 먼저 模倣으로부터 시작하며 學詩의 첩경은 下字의 妙를 터득하는데 있다 하였으니, 이는 詩의 修辭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 詩의 結점을,

동방의 시는 대저 工巧하지 못하다. 능히 옛 사람(필자주: 중국의 名詩家) 것 같은 詩語는 지으면서도 옛 사람 것같은 工巧함이 없다. 이것이 중국만 못한 이유이다.³⁶⁾

라고, 지적한 것도 修辭上の 技巧 문제로 下字用法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詩想은 같으나 ‘서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란 이치와 같이 形象化 과정의 기교도 중하다는 창작관이라 하겠다.

전술한 바도 있거니와, 學詩者가 초보단계에서는 模古段階를 거치게 마련이며 學唐·學杜가 가장 바람직하나 시인 자신의 재질에 맞게 學邵雍 學濂洛을 해도 크게 잘못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學詩者가 유의해야 할 점이있으니,

34) 滄海詩眼 上卷 10章, 學詩者 欲識古人用力處 當先看其下字. 子美詩有曰歸雁喜靑天 有曰荒庭垂橘柚 有曰江聲走白沙 喜字垂走字 子美之前人 無有拈出者 是子美用力處

35) 滄海詩眼 中卷 84章

36) 上同 中卷 80章, 東方詩 大抵不工 能爲古人語 而無古人工 此所以不如中國者也

뒷 사람이 옛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聲響(音律)만이 아니라 實境(실재의 정경)을 묘사하는 일에는 더욱 옛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한갓 聲響만 취하게 되면 환상적이라 대중할 수 없는 데 흐르고, 오로지 實境만을 취한즉 무디고 빈약한 데 마치게 되니, 이것이 뒷 사람의 作詩病이다.³⁷⁾

라고, 音樂性和 寫實性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이 學詩者가 크게 유념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더구나, 實境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固定觀念을 타파하고 曲盡性을 다 하는 일이 소중하다고 하였다. 즉, 初唐 四傑(楊炯·王勃·駱賓王·盧照隣)의 한 사람인 楊炯의 從軍行 起句는 “烽火는 西京을 비추는데 心中은 절로 平安칠 않네”라 했다. 이를 林下는, “3인에게도 ‘心中自不平’이란 一句가 없고, 唐의 詩人이 從軍行·出塞行 등을 지은 게 수십 편에 그친 게 아닌데도 역시 아직은 ‘心中自不平’ 같은 詩句를 드러낸 이는 없다.”³⁸⁾라고 비평했다. 이는, 從軍은 忠의 발로란 고정관념만이 實境은 아니라는 반론으로 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眞實性 추구에 대한 林下의 시 창작관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기에 林下는 중국시를 蹈襲이나 일삼고 高遠新奇한 데나 힘써서 일시의 榮名을 피하는 詩人을 심히 배척했던 것이다.

3) 詩評類

① 東方詩에 대한 自負

동방의 작자는 수천가에 이르러 音調聲律은 비록 唐詩에 미치지 못하나 宋詩에 비해서는 자못 낫다. 그러나, 혹자는 小國의 음이라고 홀시한다. 南鶴鳴(필자주: 1654~? 南九萬의 子)같은 이로서도 족히 세상에 전해 칭할 게 못 된다고 하니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³⁹⁾

예문을 통해 보아도 林下가 우리 시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지녔는가를 알 수 있거니와 이로써 세상(滄海)의 시를 봄에 우리 나라의 시를

37) 滄海詩眼 下卷 27章, 後之不及古者 非直聲響 寫實境尤不及古人 徒取聲響 則流於浮幻 專取實境 則終於拙饒 此後人之病也

38) 滄海詩眼 中卷 14章, 따옴표 것만 인용함. …烽火照西京 心中自不平 三人未嘗有心中自不平一句 唐人之從軍行出塞行等作 不止累十篇 而亦未嘗見心中自不平一句

39) 滄海詩眼 上卷 4章, 東方作者 不下數千家 音調聲律 雖不逮李唐 比宋殆過之 而人或以小國之音 忽之 如南鶴鳴以不足以傳世稱之 殊未可解也

唐·宋·明의 詩와 대등한 위치에 놓은 滄海詩眼 저술 태도도 이해할 수 있다. 전술한 바 있는 盧守愼의 詩를 평하여 “전편은 대체로 忠厚하며 기교를 다한 흔적도 없다. 小陵(杜甫)이 아니고서야 능히 할 일인가? 이 詩(龍湫院詩)를 읽고 바야흐로 此老가 詩의 聖人임을 알았다.”⁴⁰⁾라고, 노수진이 두보의 경지에 이르렀다 했음에도 알 수 있다. 東國詩에 대한 자부는,

燕超齋의 文章이 출중하긴 했으나, 실혼이 못되어 夭死했다. 李安重이, 東方의 詩文은 오직 吳尙濂이 찌꺼기나마 겨우 알았지 그 나머지는 족히 볼 게 없다 하였 다. 安重은 진실로 妄言을 했도다.⁴¹⁾

라는 비판에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過三田渡’ 詩로 詩名을 얻은 吳尙濂이나 그의 시가 東方詩를 대표한다는 것은 詩不成說이란 비판이다. 東方詩에 대한 자부심을, 작품을 통해 實證해 보인 것은 他 詩話集⁴²⁾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점이라 하겠다.

② 詩評상의 客觀性

내 알찌기, 세상의 註詩者가 억지로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을 해 번거롭고 지리 하며 註釋을 하면 할수록 어둡고 상세히 하면 할 수록 더욱 혼란해짐을 병으로 여겼다. 菊圃(姜樸·1690~1742)가 쓴 虞註杜律後叙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웃기를 여미게 되고 놀라운 마음이 일었다. 그 말에, ‘시인이 자고로 註釋을 잘한 게 없다.’, 또 ‘詩에 꼭히 註할 일은 아니다. 있더라도 반드시 불 필요는 없다. 시를 보는 사람은 다만 먼저 자신의 氣習(羣血氣)이나 화려하게 꾸밀(芳華)생각을 버리고, 淨靜하고 여유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坐臥間에 볼 일이다.’ 또, ‘반드시 내가 작자가 된 입장에서 詩人이 관심을 쏟을 때의 광경을 求見할 일이다’ 하였다. 아, 古今人의 眼目이 이르지 못한 바를 菊圃가 능히 엿보아 깨뜨렸다.⁴³⁾

40) 滄海詩眼 中卷 68章, 全篇大體忠厚 無斧鑿痕 除非少陵而能之乎 讀此方之此老之聖於詩也

41) 滄海詩眼 下卷 20章, 燕超齋文章冠世 未三十而夭死 李安重以爲東方詩文 惟吳尙濂 稍識糟粕 其餘無足觀 安重誠妄矣

42) 백운소설·파한집·보한집·동인지화·소화시명·시평보유 등에는 없다.

43) 滄海詩眼 上卷 5章, 余嘗病世之註詩者 牽強穿鑿 瑣瑣支離 愈釋愈晦 愈詳愈亂 及觀 菊圃所爲虞註杜律後叙 不覺斂衽而起敬也 其言曰詩家 自古無善註 又曰詩不必有註 有亦不必看 看詩者 但先去吾羣血氣 氣芬華想 從淨靜暇豫地 坐臥看 又曰必以吾身設爲 作者 以求見其屬思時光景 嗟呼 古今人眼目 所不到處 菊圃能觀破矣

詩의 註釋은 鑑賞者를 위한 편의 제공이며 나아가 詩評者의 자기 해석이라 할 수 있다. 林下는 독단에 치우친 詩註는 배격하야 마땅하다고, 菊圃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감상을 하든 비평을 하든 독자는 시인의 창작 순간에서 볼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바로 詩評者가 최대한 자기류의 독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詩를 評價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詩評觀이다. 전술한 바 三峰이 陶隱과 不和하여 詩까지 배척한 詩話는 바로 詩評의 객관성을 주장하기 위한 예에 불과하다.

批評家의 객관적 자세는 저자의 曾祖息山 李萬數의 詩를 평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曾祖息山公의 秋郊牧笛詩에, ‘단발한 어린 아이, 큰 소를 잘도 모네. 해질녘 들 판에 한 가락 피리소리, 물건너 가는데, 드는 산 그림자,’라 했다. ‘단발한 어린 아이, 큰 소를 잘도 모네’는 앞 사람이 아직 다 말한 것이 아니나, ‘물건너 가는 데, 드는 산그림자’는 자못 회화적으로 하려했으나 그렇지 못하다.⁴⁴⁾

評者와의 親疎로 하여 評價에 輕重이 있을 없다는 지론이다.⁴⁵⁾

또한 詩를 짓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詩를 이는 일이 어렵다고⁴⁶⁾ 한 말은 詩評은 어렵다는 말에 적결된다. 東國의 文豪라는 李相國(奎報)을 예로 들어,

李相國이 詩를 평함에, 梅聖俞의 시에 點頭하여 謝靈運의 ‘池塘에 春草 冬고’란句는 아름답지 않다 하고 徐凝의 瀑布詩 ‘三尺의 길이는 흰 비단 나는 것같고 한 가닥 물줄기는 靑山의 色을 쏘겠네’라 한句는 만고의 妙辭라 하였다. 그러나, 蘇東坡는 徐凝의 詩를 惡詩라 하였고 歐陽修는 梅聖俞의 詩는 工巧하나 ‘池塘春草’之句는 고금에 다 絶唱이라 했다 하였다. 相國의 評品은 자못 過不及(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거나)의 사이라 할 수 있겠다.⁴⁷⁾

라고 하였다. 李奎報의 詩眼을 蘇東坡나 歐陽修의 詩眼보다 下位에 둔것

44) 滄海詩眼 中卷 97章, 曾祖息山公 秋郊牧笛詩 曰短髮尺餘兒 大牛能自領 晚郊笛一聲 渡水入山影 短髮尺餘兒 大牛能自領 前人未道破 渡水入山影 殆欲盡不得

45) 任璵, 玄湖瑣談, 34章, 金錫胄가 신라 崔致遠으로부터 鄭斗卿(1597~1673)까지 4言句로 詩評한 가운데 象村 申欽에 대한 평이 없는 것을 저자는 ‘象村文章與芝峰 伯仲間 而獨漏於此 豈息菴(필자주: 김석주)以其外先祖 故不敢評品而然與’라 하여 詩를 평함에도 忌諱함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46) 徐居正, 東人詩話 上卷 57章에도 作詩非難而知詩爲難의 예를 들고 있다.

같은 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詩를 아는 일·詩를 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李奎報같은 大家의 경우에도 過不及일 수 있다는 例로, 자신에게는 물론 남에게도 注意를 환기시키려 했다고 보아야 하겠다.

③ 詩의 浪漫性 認定

林下 역시 詩의 世敎的 效用을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나, 詩人의 浪漫性을 크게 인정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사람을 보지 않고도 詩를 통해 作자의 人品을 알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⁴⁸⁾ 詩로써 作자를 다 알 수는 없다고도 하였다. 어떤 이가 張文潛에게 孟郊와 賈島 중 어느 쪽이 더 가난한 줄 알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張文潛은 詩로써 알 수 있거니와 賈島가 더 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林下는, “孟郊와 賈島는 크게 궁한 선비일 뿐, 詩人이 일시 浪漫的인 읊조림으로써 會境(정경을 그린)한 작품을 가지고 어찌(사람을) 단정하리오. 그렇다. 文潛은 詩를 말했을 뿐이다.”⁴⁹⁾라고, 詩가 곧 詩人의 人品·人格 자체신래 수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는 林下의 詩三來說에 비추면 情來나 神來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으며, 詩人의 浪漫性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姜必敎의 사랑됨은 비루하나 그 시는 극히 아름답다. 姜龍安丈人을 송별한 詩의 二聯에 ‘薄邑 龍安의 尉라 말하지 마소. 오직 알 일은 옛 毛義(필자주: 후한의 효자로 도친을 위해 버슬함)의 마음이지요. 잉어는 소반에 오르고 南村의 술은 푸른 데 붉더는 閨門을 비추고 北江은 깊으리’라 했다. 사람으로써 詩를 폐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⁵⁰⁾

사람이 비루하다고 하여 詩까지 폐하는 일은 잘못이란 예시다. 이는 곧 詩人의 낭만성을 인정한 경우며 孟子의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乎”(萬章篇)란, 儒家의 正統的 詩觀과는 배치된다. 이는, 詩와 환경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學古文, 醇正文學만을 고집하던 詩人·評者에게는 일종

47) 滄海詩眼 下卷 49章, 李相國評詩 點梅聖俞 以謝靈運 池塘生春草之句爲不佳 以徐凝瀑布詩 三尺長如白練飛 一條界破青山色之句 爲萬古妙辭 然而蘇長公 則以徐凝爲惡詩 六一居士 則以梅聖俞爲工 池塘生春草之句 古今皆以爲絕唱 相國評品 殆居過不及之間矣

48) 滄海詩眼 下卷 22章, ……余雖未見其人 讀其詩 直可以想像其高古

49) 滄海詩眼 中卷 75章, 孟賈大要窮土耳 以詩人一時漫浪之吟 會境之作何以斷也 固矣哉 文潛之言詩也

50) 滄海詩眼 中卷 69章, 姜必敎爲人鄙陋 而其詩極佳 送姜龍安丈人詩二聯 曰休言薄邑龍安尉 猶識古人毛義心 紅鯉登盤南綠綵 春簾照閣北江深 不以人廢其詩 可也

의 도전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주장은 한편 評者의 客觀性을 환기시키는 일로 人間爲主(人生을 위한 藝術)의 評에 치우쳐 왔던 한국 詩評家의 편견을 지적, 作品爲主(藝術을 위한 예술)의 評價가 批評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④ 詩發掘로서의 詩評

詩를 評價하는 일은 일차적인 목적이 좋은 詩의 발굴에 있다 하겠다. 滄海詩眼은 드러나지 않은 詩에 대한 발굴 작업으로서 詩를 評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술한 바 選定된 詩人 中 한국 시인이 201명인데 이중 詩史(각종 詩話나 詩評集 등을 일컬음)에 전혀 거론된 바가 없는 시인 70여 명의 詩를 批評한 사실은, 30% 이상을 無名人의 詩發掘에 詩眼을 집중했음을 보이는 일로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選定된 詩人의 분포로 보면 전혀 黨色을 띠지 않았고(林下는 淸南系統의 후손임)지역적 한계성을 초극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해 왔듯이 詩評상의 객관성 유지나 作品爲主의 評價觀은 전편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이는 親疎, 有無名間에 일관되어 있다. 특히 親家側 詩人을 거론함에도 공정성을 유지하려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尙州牧使 李學源이 家大人(필자주: 剛齋 李承延)에게, 沈斯文長泰가 내게 편지를 보내 말하길, 그대는 李龔齋(필자주: 李秉延)를 아는가?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자자하게 알려진 ‘외로운 새 하늘 길 멀어 돌아갈 길 막막하고, 우는 노센 강이 넓어 갈 길이 쓸쓸하네’란 詩句를 들었는가? 이는 곧 그 伯氏(필자주: 李承延)의 詩다 하였다. 세상엔 혹 家大人의 詩라고 잘못 알고도 있다. (필자주: 李秉延의 詩임) 우리집 父兄의 詩名(墳簾)이 일시에 성했음을 이로써도 알 만하다.⁵¹⁾

라고 하여 我田引水格에 빠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몇 경우를 들어 저자가 발굴하려 했던 詩人들의 詩를 살펴 보도록 한다.

먼저 士人인 경우를 들 수 있다.

南克寬(南九萬의 孫)은 그의 夢囈集에 鄭榮邦(字慶輔·龍宮人·進士)

51) 滄海詩眼 上卷 61章, 牧伯李侯學源 謂家大人 曰沈斯文長泰 抵書於我 曰君知李某龔齋 李亦聞世所藉藉 獨鳥天長歸漠漠 鳴騶江瀾去蕭蕭之句乎 此即其伯氏之詩也 世或錯認 爲家大人詩 吾家父兄 一時墳簾之盛 從可之也

의 詩를 그가 죽은 60년만에 발굴하여 실었다. 저자는 또 夢嚙集에서 鄭榮邦의 詩를 8首 뽑아 再收錄하며 그의 詩는 대체로 陳子昂을 본떴다고 評하며 夢嚙集의,

諸詩의 體氣는 高妙하고 興은 深遠한 데 부쳤다. 詩語가 더욱 雅麗하여 결코 세상에 들레는 자가 미칠 일이 아니다. 東土는 淺小하여 재주있는 무리로 發聞치 않음이 없는데 오리라 이같은 埋沒者가 있으니, 항차 天下의 큰 데 있으리라⁵²⁾

고, 재능있는 이의 작품은 묻혀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詩名을 누구 못잡게 얻었는데도 어느 評者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매몰의 염려가 있다고 보았다. 전술한 李秉延의 ‘獨鳥天長歸漠漠 鳴驟江濶去簫簫’ 一聯은 사람의 입에 膾炙되어 상인·어린 아이까지 전파하는데도 詩評者의 관심 밖에 놓이게 된 연유가 의아하다고 했으며⁵³⁾ 또한 詩人으로 자처하지 않아도 佳作를 남긴 시인의 시는 傳世토록 하는 게 옳다고 했다.

一善(善山)에 蒼巢란 분이 있었다. 당대의 文名이 嶺南에서는 크게 울렸다. 평생에 詞翰土로 자처하지 않은 까닭에 지은 詩는 겨우 십여 편이나 佳句가 많다. ‘근심 많아 백발은 날로 길을 더하는데 서리 거듭해도 국화는 마음 고치지 않네’와 같은 句는 비록 근세의 名家라도 또한 어찌 이보다 나으리오. 그 篇幅이 많질 않아 능히 세상에 전하지 못함이 애석하다.⁵⁴⁾

詩話·詩評集은 이런 詩人들의 매몰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賤人인 경우를 들 수 있다.

東湖樵客은 鄭逸의 奴였다. 그의 시는 극히 清麗하였는데 白鷗詩가 가장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시는, 東湖의 봄물은 藍보다 푸르고 白鳥는 분명 두세 마리 보

52) 滄海詩眼 中卷 66章, 諸詩體氣高妙 興寄深遠 語尤雅麗 決非譯世者可及 東土淺小有才之徒 無不發聞 猶有埋沒如此 況天下之大乎

53) 滄海詩眼 上卷 59章, (上記詩 생략)……尤膾炙 雖賈豎小兒 相傳播此一聯 未必勝似集中諸作 而如是何哉

54) 滄海詩眼 中卷 19章, 一善有蒼巢丈人 以時文大鳴於山南 平生不以詞翰自處 故所爲詩 僅十餘篇 而多有佳句 如愁多白髮頻添丈 霜重黃花不改心 雖近世名家 亦何踰此 惜其篇幅無多 不能傳也云

이더니, 서서히 져는 노소리에 날아 사라지고 석양에 산색만 빈 못에 가득하네'이나 ...中略... 나의 族祖 天然子(필자주: 李之鼎·進士·文章書畫로 著名)와는 서로 자주 酬唱하여 여러 편이 다 晚唐의 시풍을 떠었다.⁵⁵⁾

종의 신분으로도 佳作를 남긴 예다. 작품(생략한 한 수는 老妓에게 준 시다.)만 評해 놓았으나 역시 言外에 길이 전하려는 저자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⁵⁶⁾ 또 한 예는 興海吏 崔某의 詩에 대한 評이다.

興海吏로 姓이 崔인 者는 詩를 잘 했는데 蘆石樓詩 一聯은 靑泉子(申維翰)의 詩에 양보할 일이 아니다. 靑泉子가 '天地間 報君한 이는 三壯士요, 江山엔 나그네 머무는 높은 다라일세'라 한 句에 '영웅은 睢陽城의 張巡(필자주: 安祿山亂을 막다 죽은 장수)같이 죽어, 천지에 우뚝한 축석루일세'라 하였다.⁵⁷⁾

靑泉子 申維翰(海游錄의 저자)은 한국 詩史에 남은 大家다. 그의 대표작인 축석루 시에 조금도 손색없는 시를 남긴 胥吏 崔某는 滄海詩眼이 아니면 그 姓字조차 인멸되었을런지도 모른다.

끝으로 夭死者인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中州 洪昇輔氏는 彩峰(필자주: 洪萬遂·校理)의 손자요 博泉公의 외손자다. 나 이 스물에 요사했으나 文章은 일찍 이뤘 李義山(필자주: 商隱의 字, 晚唐의 시인으로 宋初 西崑體詩의 鼻祖)에 비기면 氣骨이 모자라고 溫庭筠(晚唐의 시인, 詞家の 대표)에 비기면 淸警함이 동등하다. ...中略... 그가 杜鵑을 노래한 詩에, '사방은 다만 깊은 숲뿐三更에 두견새 울음 듣네, 峽天은 꽃다운 풀 밖이요 峽月은 지는 꽃 앞일세. 네 울어 끝내 어찌려나 冤聲만 공연히 가련한 것들'이라 했다. 溫庭筠의 '峽天'과 酷似하다. 처음 '蜀天'을 지었을 때 菊園가 '蜀天'으로 고치었다. 단지 著述한 것이 겨우 40편 뿐이라, 그 많지 않음이 애석하다.⁵⁸⁾

55) 滄海詩眼 中卷 32話, 東海樵客 鄭逸人奴也 其詩極淸麗 白鷗詩最膾炙 曰東湖春水碧於藍 白鳥分明見兩三 柔櫓一聲飛去盡 夕陽山色滿空潭……中略……與吾族祖天然子善相與唱酬 累數篇皆帶晚唐痕

56) 李敬儒, 林下遺稿卷九, 書, '與東湖樵客鄭逸書'에서, 於是乎歎山林隱遯之士 如樵客者多 而其名之 不章於世 如是 良可悲也

57) 滄海詩眼 下卷 9章, 興海吏姓崔者工詩 蘆石樓詩一聯 不讓於靑泉子 所爲天地報君三壯士之句(필자주: 이 對句는 江山留客一高樓이다.) 即英雄并死睢陽郭 天地仍高臺石樓

스물에 묘사한 無名詩人 洪冕輔의 詩를 晚唐 最高의 詩人들인 李商隱과 溫庭筠에 비견하였다. 이 외의 두 夭死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재능을 다했으나 그 지은 시가 많지 않아 영구 보존이 어려울 것을 한결같이 애석해 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詩發掘로서의 詩評은, 士人이건 吏奴건 夭死者건 높은 詩眼을 지닌 評者의 보호가 없으면 佳作도 영영 매몰되고 말 비운의 예방책이기도 하다. 문학적 공헌이 여기에도 있다 하겠다. 첨기할 일은, 無名人의 佳作를 발굴하는 작업 이면에는 評者의 뜨거운 人間愛가 수반되었다는 사실이다.

Ⅲ. 끝 말

이상에서 살펴 온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인 林下 李敬儒(1750~1821)는 경상북도 상주(尙州) 출신의 선비요 시인이다. 高祖 博泉 李沃과 曾祖 息山 李萬數, 父 剛齋 李承延으로 이어지는 文翰家의 맥을 이었다. 遺稿 12卷 6冊과 滄海詩眼을 남겼는데, 저작 연대는 林下의 55세 전후(1804~1806)로 추정할 수 있다. 滄海詩眼의 체제는, 총 166面이며 每面 10行, 1行 20字로 上中下 三卷이다. 漢文筆寫本인데 原本은 兒童文學家 權泰文氏가 소장하고 있다.

둘째, 저작의 일차적 목적은 시를 보는 눈을 밝혀 바른 詩鑑賞 내지 詩作을 돕게 하려는데 두었으며, 부차적인 목적으로 無名詩人의 佳作를 발굴해 詩史에 영구히 남게 하려는 데도 있었다.

셋째, 선정한 시인은 한국이 201명, 중국이 121명이나, 例詩없이 이름만 거론된 시인까지 합치면 330여 명에 이른다. 특히 한국 시인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둔 것은 당시까지 詩史(詩話·詩評集 중심)에 전혀 거론되지 않은 無名詩人 70여 명의 詩를 발굴해 소개하는데 역점을 둔 까닭에도 있으니 이는 이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수록 내용은 크게 詩話類(23章), 詩論類(107章), 詩評類(244章)로 나눌 수 있는데 총 374章이다. 東人詩話의 詩話를 두세 편 再引한 외

58) 滄海詩眼 中卷 27章, 中州洪冕輔氏 彩峰之孫也 博泉公之外孫也 年二十而妖 文章已成 比李義山欠氣骨 溫庭筠同清警……中略……其詠杜鵑詩 曰四面多深木 三更聽杜鵑 峽天芳草外 岩月落花前 若哭終何益 冤聲空可憐 酷似庭筠峽天 初作蜀天 菊圃改之以蜀天 但所著述 纔四十篇 惜乎其不多也

는 다 저자의 독자적인 논술로 詩論이 諸詩話(詩評)集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도 본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詩評論集이라 할 수 있다. 또한 詩論의 실례는 詩人像(資·才·志), 詩作(詩作態度·詩作法), 詩品(詩意·詩巧·格律)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다섯째, 詩 評論上에서 특기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자의 詩觀을 들 수 있다.

詩의 效用說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동조할 수 없다고 하였고, 詩道는 詩經을 淵源으로 삼고 있으나 거기에도 盛衰가 있고 古文派의 詩觀만으로 詩道의 正邪를 판가름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은 燕岩·茶山 등의 실학과 詩文觀과 일치한다 하겠다. 詩는 시인이 처한 시간적·공간적 환경과 시인의 개성에 따라 창작되는 소산물로 보았다. 그러기에, 詩言志로서의 醇正詩(人生을 위한 예술)를 正道로 보면서도浪漫的인 詩(藝術을 위한 예술)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점은 한국 詩評論史에서 특기할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은 詩의 本質에 대한 추구를 들 수 있다.

저자는 詩의 본질을 파악해야 감상도 작시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詩의 창작 동기로 氣來·神來·情來를 주장하였다. 이는, 詩가 시인의 意志·想像·感情의 소산물이란 三來說로 이 중에서도 시인의 상상력을 누누이 고조시킨 점은 현대시 창작에 접근한 견해를 알 수 있다.

끝으로 詩評의 객관성을 들 수 있다.

저자는 우리 시에 대한 자부가 대단하여, 중국의 宋代 이하의 詩와는 견주지 않았고 唐代의 詩聖이라 할 杜甫같은 시인이 한국(盧守愼)에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단순한 反小華, 反慕華思想에서가 아니라 객관성을 띤 作品의 評價를 통해 얻어낸 결론이란 데 주목할 만하다. 특히 無名詩人의 작품을 대거 발굴 평가하면서 人間爲主의 詩評觀에 치우쳤던 당대의 詩壇風潮를 혁신하려 하였고, 나아가 이들의 작품 속에서 唐代 名家의 작품과 나란히 놓을 작품이 있음을 예증함으로써 우리 詩를 滄海(世上)의 의젓한 詩 가운데다 자리를 확보하게 하였다.

이상을 滄海詩眼 考察의 결론으로 삼지마는, 詩 評論史에서 본 저서의 위치를 밝히는 일은 이 평론집보다 먼저 나온 詩話·詩評集을 두루 섭렵하고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로 남는다.